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고 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총 131명의 만 14세 중학생과 137명의 만 23세 대학생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의 자녀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둘째,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중간 정도인 대학생들이,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아주 높거나 낮은 그룹에 비해,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 발달을 위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버지, 존재감, 부모로부터의 분리,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청소년, 비선형

[†] 교신저자 :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E-mail: gowoonsuh2@gmail.com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던 아동기를 끝나치고 독립성을 확립해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해나가는 것은 단연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성에 언급하였는데(Orth & Robins, 2014),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 수준(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살생각(장세영, 2013), 대학생활 적응(박은희, 최은실, 2015), 삶의 만족도(정득, 이종석, 2015)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e.g., 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Barber, Stolz와 Olsen (2005)에 따르면, 통제적 양육 행동은 정신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와 행동적 통제(behavioral control)로 구분되어 지는데, 정신적 통제는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녀의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 행동을 의미하며, 행동적 통제는 규칙을 세우거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Hoeve, Dubas, Eichelsheim, van der Laan, Smeenk, & Gerris, 2009).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부모의 정신적 통제와는 달리,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백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한국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행동적 통

제는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였으며(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엄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예측하였다(김수희, 박성연, 2009). 또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는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Pinquart, 2016),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Pinquart, 2017) 등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사상과 과도한 학업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한국의 부모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규칙을 정해 통제하는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방과 후 일정, 주말의 계획, 친구 혹은 이성 관계 등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활동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녀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영향력은 거의 연구되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많은 이론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Bowlby(1982)는 아동에게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좋은 놀이 친구라고 하였으며, Grossmanns, Grossmann, Fremmer-Bombik, Kinder, Scheuerer-Englisch와 Zimmermann(2002)은 어머니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아버지는 아동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Leidy, Schofield와

Parke(2013)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적 논문들 또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하여 검증해 왔는데,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족하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였고(김현아, 장혜인, 2017), 아버지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증가하였다(김현아, 장혜인, 2016). 따라서 본 논문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영향력도 검증하여,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매개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의 부모의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 발달에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와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Leondari & Kiosseoglou, 2000;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Meeus, Irdema, Maassen, & Engels,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매개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의 분리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밀착된 가족 관계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를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Dzukaeva, 2014). 부모에게 기능적으로 그

리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건강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 부모의 과도한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하여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분리 과정은 청소년의 자아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arbarino, Gaa, Swank, McPherson, & Gratch, 1995, Koepke & Denissen, 2012). 분리-개별화 과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청소년시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벗어나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포함한다(Lapsley & Edgerton, 2002). 자율성 획득은 청소년기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산물로, 성인기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를 성취해야만 한다(Dzukaeva, 2014).

Hoffman(1984)는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적 분리 측정도구(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였다. PSI는 네 가지 영역의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측정한다. 첫째,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개인적인 문제나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둘째,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승인, 정서적 지지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셋째,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에 대한 불신,

불안, 책임감 혹은 반감 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넷째,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얼마나 다른 태도, 가치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본 연구는 한국의 부모와 청소년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가 헬리콥터 양육 혹은 치맛바람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채명옥, 임소연, 이용화, 김지현, 오진아, 2016; Wu Chuni, 안도희, 2017). 청소년기가 되어도 자녀의 모든 일상과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한국 부모의 양육 특성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기능적 독립을 건강하게 성취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기능적 독립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일은,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청소년의 발달에 매우 작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청소년 발달 변인들과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Lucas(199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자아발달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O'Brien(1996)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직업 자신감 혹은 갈망과 같은 직업 선택 관련 변인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김지나(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

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여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기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의 영향력이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비일관적 결과들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검증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다른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이 본인의 일이나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과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본인의 일이나 문제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부모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해나가는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가 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과연 어느 시기에 부모로부터 기능적 분리를 하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균 만 14세의 중학생과 평균 만 23세의 대학생 두 집단을 조사하여,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라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선형적(linear)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curvilinear) 관계를 보일 수 있다. 22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Garbarino, Gaa, Swank, McPherson과 Gratch(199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와 자아정체성 발달이 여성의 경우 정적인 비선형 관계를, 남성의 경우 부적인 비선형 관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즉, 여성의 경우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발달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남성의 경우 자기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발달이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친구와의 개별화와 자아 발달 간의 관계에서는 U자형 관계가 발견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성차는 없었다.

자아발달 외에도,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다른 변인과 비 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Haws와 Mallinckrodt(1998)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수준과 결혼 만족도 간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부모로부터의 분리수준이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정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검증 결과, 여러 유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검증되었는데, 우선 아내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U자형의 관계를 보였다. 즉, 아내가 부모로부터 아주 높거나, 낮은 독립을 보이는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남편의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의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뒤집어진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즉, 남편이 부모로부터 아주 높거나 낮은 기능적, 정서적 독립을 보이는 경우 남편의 결혼 만족도가 낮았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다양한 발달 요소들과 다양한 비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선형적 관계 뿐 아니라 비선형적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perceived

matter to parents)

부모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독립성을 획득하는 발달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발달 과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부모와 밀접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해야만 한다(Lapsley & Edgerton, 2002). Leondari와 Kiosseoglou(2000) 역시 부모로부터의 분리 뿐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 발달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Bowlby(1982)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자녀와 부모의 안정적 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l, 2001), 이러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자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자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있어서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존재감(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을 측정하였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어져왔다(Suh, Fabricius, Stevenson, Parke, Cookston, Braver, & Saenz, 2016; Stevenson, Fabricius, Cookston, Parke, Braver, & Saenz, 2014). 부모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부모와의 관계가 급변하는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급

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청소년에게 더 이상 그들이 부모에게 예전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tevenson et al., 2014).

존재감(mattering)은 Rosenberg와 McCullough(1981)가 소개한 개념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a) 개인이 타인의 관심(attention)의 초점이 되는지; (b) 개인이 타인에게 중요한(importance) 존재인지; (c) 타인이 개인에게 의존(dependence)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Rosenberg와 McCullough(1981)는 그들의 논문에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Marshall(2001)은 하나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11개 문항의 ‘타인에게 있어서의 존재감 척도(Mattering to Others Questionnaire: MTOQ)’를 개발하였으며, 부모에게 있어서 청소년이 지각한 존재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Marshall(2001)의 MTOQ 척도는 4개의 관심(attention) 문항, 5개의 중요성(importance) 문항, 2개의 의존(dependence)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Suh et al., 2016).

이후 Elliott, Kao와 Grant(2004)은 Rosenberg와 McCullough(1981)가 소개한 존재감(mattering)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였다. Elliott, Kao와 Grant(2004)에 따르면, 존재감(mattering)은 크게 두 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범주는 개인이 타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각(awareness)’ 범주라고 언급하였다(예: 타인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 두 번째 범주는 개인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중요성(importance)’요소(예: 타인이 내가 하는 일을 신경 쓴다)와 타인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가리키는 ‘의존(reliance)’요소(예: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한다)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Elliott, Kao, & Grant, 2004). 본 연구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요성’과 ‘의존’요소를 측정하였다. ‘자각’ 범주의 경우,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별력 있게 측정되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제외하였다.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연관성은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강조되어져 왔지만(e.g., Bowlby, 1982, Kerns et al., 2001),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과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적 존재감의 관계는 연구되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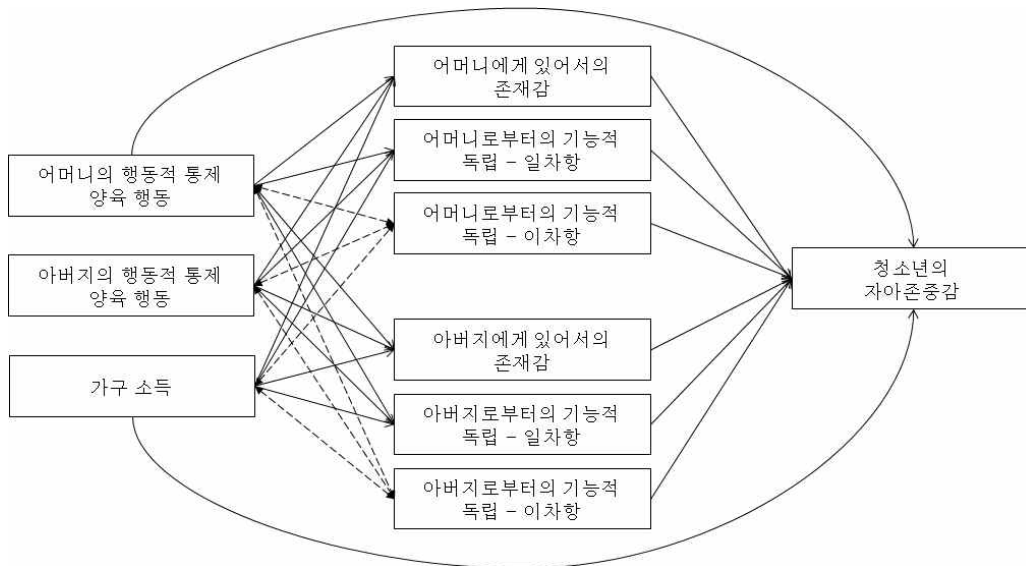
한편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밝혀져왔다. 부모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비행행동 뿐 아니라(Parker & Benson, 2005), 긍정적인 친구 관계 및 이성 관계(Leidy, Schofield, & Parke, 2013; Linder & Collins, 2005)등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기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Suh et al., 2016). 따라서 본 논문은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

각된 존재감의 고유한 효과(independent effect)를 검증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그 영향력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변인을 분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중학생과 대학생 모델을 각각 검증하여 청소년 연령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자아존중감에 비선형적(curvilinear)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로부터의 분리 변인의 일차항(linear term) 뿐 아니라 이차항(quadratic term)도 모델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은 부모의 양육 행동(Lee, Anderson,

Horowitz, & August, 2009),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여러 부모-자녀 관계 개념들(Guo, Lv, Zhou, Liu, Liu, Jiang, & Luo, 2018), 자녀의 자아존중감(Bannink, Pearce, & Hope, 2016)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져 왔으므로,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첫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다(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의 매개효과). 둘째,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분리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녀



Note. 점선으로 표시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가구 소득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은 직접 경로(direct path)가 아니라 상관(correlation)이 설정됨.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 매개변인들 간의 상관은 분석에는 포함되어졌으나,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그림에서는 생략.

그림 1. 연구모델

의 자아존중감과 비선형적 관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온라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설문 전문 업체, dataspring을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중학생 패널 중, 2, 3학년 학생과 대학생 패널 중,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 이메일이 발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중학생 총 131명, 대학생 총 13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학생 샘플은 2018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만 14.36세(남자: 52.7%, 여자: 47.3%)였다. 대학생 샘플은 2018년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만 23.15세(남자: 46.7%, 여자: 53.3%)였다. 중학생 참여자의 가구소득의 평균은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사이였으며, 대학생 참여자의 가구소득 평균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사이였다.

연구도구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행동은 Barber, Stolz와 Olsen(2005)이 사용한 5문항 척도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 혹은 활동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Barber, Stolz, & Olsen, 2005). 문항의 예로는 “내가 밖에 나갈 때, 엄마/아빠는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다” 또는 “엄마/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며 노는지 알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정말 아니다(1점)’ 부터 ‘정말 그렇다(5점)’ 로 이루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학생이 응답한 어머니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8,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7,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Hoffman (1984)이 제작한 심리적 분리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의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하위 척도로 측정되었다. 청소년 참가자는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였다. 기능적 독립 하위 척도는 1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생활에서 개인이 겪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김지나, 2008). 문항의 예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나는 엄마/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는 “나는 엄마/아빠의 동의 없이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이루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각 문항은 높은 점수가 부모로부터의 높은 기능적 독립을 나타내도록 역코딩 하였다. 중학생이 응답한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3 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아버지로 부터의 독립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5 였다.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존재감의 '중요성'과 '의존' 요소로 측정되었다. '중요성' 요소는 Parents and Youth Study(PAYS)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져 여러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e.g., Stevenson et al., 2014; Suh et al., 2016)'의 7문항 중 5문항을 한국어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¹⁾, 1문항을 추가하였다.²⁾ '의존' 요소는 Marshall(2001)이 개발한 '타인에 대한 존재감 척도(Mattering to Others Questionnaire: MTOQ)'의 문항 중 의존을 측정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 1) 부자연스러운 직역보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을 위한 수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원래의 문항의 비교급 표현(예: I think my mom/dad cares about other people more than me)을 청소년이 응답하기 쉽게 최상급 표현(예: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신다)으로 수정하였다.
- 2) '중요성' 요소의 문항들이 평서문('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아끼신다'와 '엄마/아빠는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과 최상급 표현문('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신다'와 '엄마/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문항의 최상급 표현문인 '엄마/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8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번역 전 원래의 영어 문항은 가로 안에 표기).

- (1) 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아끼신다(My mom/dad really cares about me).
- (2) 엄마/아빠는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I believe I really matter to my mom/dad).
- (3) 엄마/아빠는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I know my mom/dad loves me).
- (4)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신다(I think my mom/dad cares about other people more than me).
- (5) 엄마/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I am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to my mom/dad).
- (6) 엄마/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본 연구에서 추가된 문항).
- (7) 엄마/아빠는 내가 필요하다(I am needed by my mom/dad).
- (8) 엄마/아빠는 내가 엄마/아빠와 떨어져있을 때, 나를 보고 싶어 한다(I am missed by my mom/dad when I am away).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 로 이루어지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7,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8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5,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7였다.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

자존중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는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중학생이 응답한 자아존중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 대학생이 응답한 자아존중감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8였다.

가구소득

청소년 참여자는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총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은 소득을 범주화하여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100만원 미만(1점)’,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2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점)’부터 ‘1000만원 이상(11점)’까지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

매개모델은 Mplus(Version 7.31; Muthén & Muthén, 1998-2002)를 통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Maximum likelihood(ML)방법을 사용하였다(Baraldi & Enders, 2010). ML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데이터(raw data)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 계수들을 산출하는데, Multiple Imputations(MI)과 더불어, 결측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현대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araldi & Enders, 2010).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어

머니와 아버지에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모델이 검증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일차 함수 관계 혹은 이차 함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일차항(linear term)과 더불어 이차항(quadratic term)이 포함되었다. 통제변인으로 가구소득이 모델에 포함되었다.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매개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이차항은 종속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가구 소득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들은 직접 경로(direct path)가 아니라 상관(correlation)이 설정되었다(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과 매개변인들 간의 상관은 분석에서는 설정되었으나, 공간의 제약으로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본 모델은 포화모델(saturated model)이므로 모델 적합도 지수들은 산출되지 않는다.

매개경로의 유의미성은 bootstrapping에 의해 산출된 신뢰구간을 통해 검증되었는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경로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MacKinnon, 2008).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의 조절 효과는 multiple group SEM을 통한 chi-square difference tests를 이용(모든 경로들이 집단 간에 동일하다고 제한된 제약 모형과 특정 경로만 집단 간에 다른 계수를 갖게 허용한 모형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분석되어졌다. 그 외의 기초통계는 SPSS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중학생 모델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통제 변인인 가족의 소득이 높을 수록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높았다($r = .21, p < .05$).

독립변인이 매개변인과 종속변인과 보이는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62, p < .01$),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0, p <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1, 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2, 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6, p < .01$)과는 부적적인 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13, p = .14$).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역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6, p <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49, 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1, p < .01$)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57, p < .01$)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r = .20, p < .05$).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1, 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2, 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6, p < .01$)과는 부적적인 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13, p = .14$).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역시,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36, p < .01$)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r = .49, p < .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1, p < .01$)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57, p < .01$)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r = .20, p < .05$).

표 1. 중학생 모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u>통제변인</u>								
1. 가구의 소득	--							
<u>독립변인</u>								
2. 어머니 행동적 통제	-.02	--						
3. 아버지 행동적 통제	-.06	.62**	--					
<u>매개변인</u>								
4. 어머니에게 있어서 존재감	.02	.30**	.36**	--				
5. 어머니로부터 기능적 독립	.14	-.42**	-.41**	-.34**	--			
6. 아버지에게 있어서 존재감	.02	.31**	.49**	.66**	-.31**	--		
7.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독립	.21*	-.26**	-.57**	-.24*	.55**	-.46**	--	
<u>종속변인</u>								
8. 자아존중감	.18	.13	.20*	.38**	-.20*	.42**	-.24**	--
<i>M</i>	5.41	3.50	2.91	4.12	2.73	4.01	3.11	3.46
<i>SD</i>	2.80	0.95	1.08	1.01	0.88	1.06	0.94	0.80

* $p < .05$. ** $p < .01$.

매개변인 간의 상관과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66, p < .01$),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34, 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4, 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38, p < .01$).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역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31, p < .01$)과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46, p < .01$)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42, p < .01$).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r = .55, p < .01$),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0, p < .01$)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24, p < .01$)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 모델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 모델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변인들과 보이는 상관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중학생 변인과는 다르게, 가구의 소득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r = .28, p < .01$). 또한 중학생 변인들에서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적 독립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표 2. 대학생 모델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u>통제변인</u>								
1. 가구의 소득	--							
<u>독립변인</u>								
2. 어머니 행동적 통제	.17	--						
3. 아버지 행동적 통제	.03	.49**	--					
<u>매개변인</u>								
4. 어머니에게 있어서 존재감	.18*	.39**	.14	--				
5. 어머니로부터 기능적 분리	.10	-.38**	-.44**	-.28**	--			
6. 아버지에게 있어서 존재감	-.01	.31**	.49**	.59**	-.21*	--		
7.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분리	-.03	-.38**	-.72**	-.21*	.66**	-.51**	--	
<u>종속변인</u>								
8. 자아존중감	.28**	.10	.03	.41**	.13	.44**	-.01	--
<i>M</i>	5.36	3.37	2.53	3.95	3.13	3.62	3.49	3.30
<i>SD</i>	2.53	0.79	1.04	0.82	0.77	1.00	0.93	0.73

* $p < .05$. ** $p < .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r = .03, p = .75$),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13, p = .15$),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r = -.01, p < .95$)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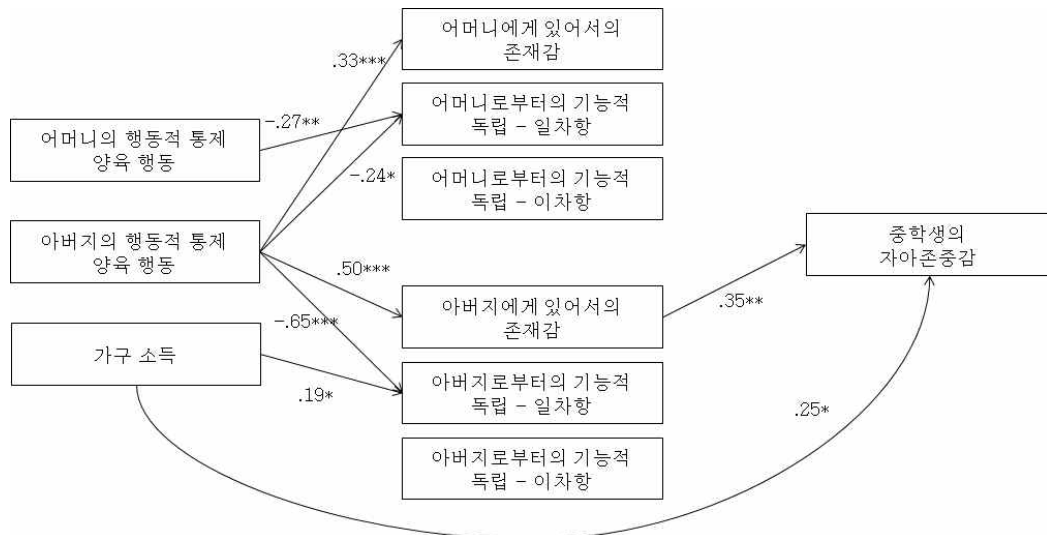
모델 검증

중학생 매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낮았다($\beta = -.27, p < .01$).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beta = .33, p < .01$)와 아버지($\beta = .50, p < .001$)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점수는 높았으며, 어머니($\beta = -.24, p < .05$)와 아버지($\beta = -.65, p < .001$)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는 낮았다. 가구소득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19, p < .05$). 매개변인 중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만이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beta = .35, p < .01$).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beta = .25,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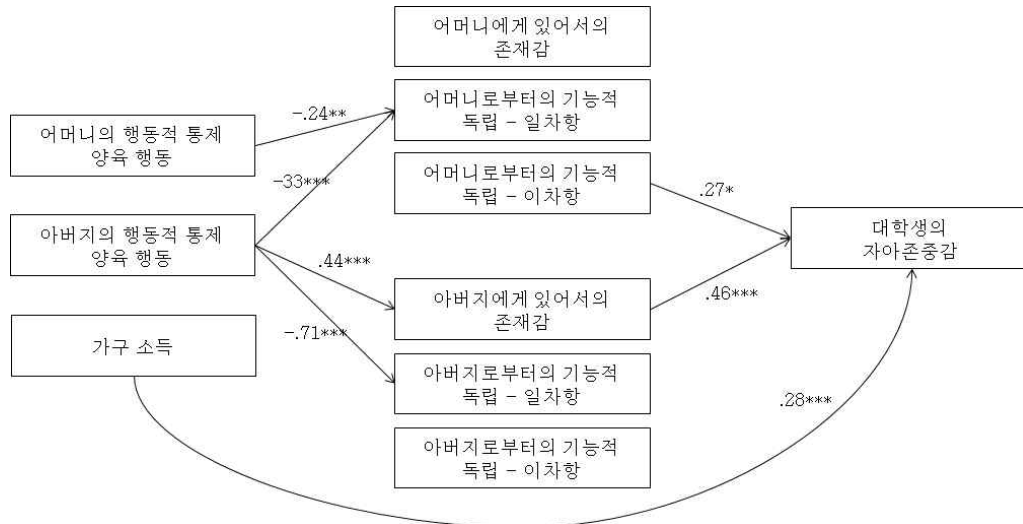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통하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nstandardized ab = .130, 95% C.I. [.037, .264]).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로 중학생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 매개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우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어머니로부터의 기



Note.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유의미한 직접 경로(direct path)들만 표기(표준화된 계수 이용).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중학생 매개 모델



Note. 그림 공간상의 제약으로, 유의미한 직접 경로(direct path)들만 표기(표준화된 계수 이용).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대학생 매개 모델

능적 독립 점수가 낮았다($\beta = -.24, p < .01$).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점수는 높았으며($\beta = .44, p < .001$), 어머니($\beta = -.33, p < .001$)와 아버지($\beta = -.71, p < .001$)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는 낮았다. 매개변인 중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beta = .27, p < .05$)과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beta = .46, p < .001$)이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beta = .28, p < .001$).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통하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bootstrapping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unstandardized $ab = .137, 95\% \text{ C.I. } [.055, .252]$).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

로 대학생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므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의 이차 함수 관계가 밝혀졌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다른 변인들을 독립변인하여 검증한 단순회귀에서도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이차항이 유의미하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beta = .37, p < .05$). 보다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의 산포도를 그려본 결과, 그림 4와 같았다.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낮거나 높은 수준일 때, 중간 수준일 때보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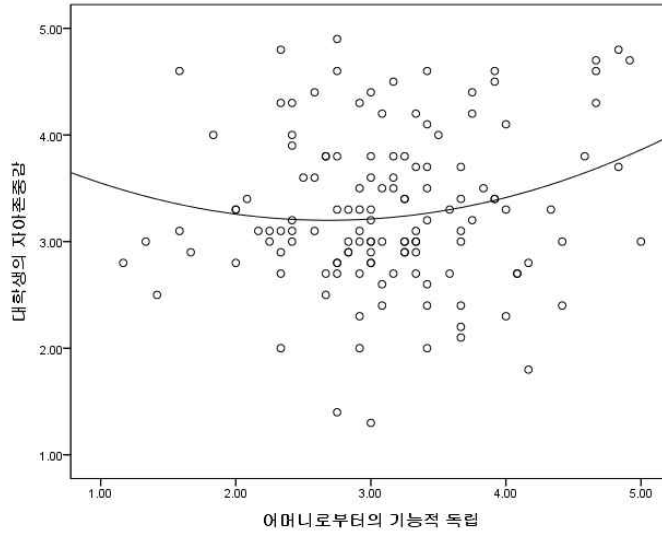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이의 이차 함수 관계

논 의

청소년기 자아의 발달은 발달적 과업이라고 지칭될 만큼(Erikson, 1972) 중요한 발달 과정이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획득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성인기로의 안정적인 진입은 물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Özdemir, Vazsonyi, & Çok, 2017).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의 특성들이 변화하는 시기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시간 혹은 빈도가 감소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다 평등화되어지는 시기이다(Meeus, Iedema, Maassen, & Engels, 2005). 아동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모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부모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측정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을 검증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선형적(curvilinear) 관계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생과 대학생 모두의 모델에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각된 존재감을 거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하는 매개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즉, 아버지가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청소년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렇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요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Suh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만 14세에 측정된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은 만 16세에 측정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부적적으로 예측하였으며, Leidy 등(2013)는 아버지가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rossmanns 등(2002)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름을 강조하면서, 아동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본인만의 자아를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적인 상황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 뿐 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능적 독립,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이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만 영향을 준 것과 비교되는 결과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청소년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보편적인 고정관념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아버지의 무관심이 청소년 자녀에게 오히려 득이 된다는 식의 아버지 역할을 폄하하는 고정관념 및 인식에 관

한 말이나 글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보편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적으로 반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의 행동과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그로 인해 청소년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중학생 모델의 경우,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과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통제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없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과는 구별되는 어머니만의 독특한 효과(unique effect)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Suh et al.(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Suh et al.(2016)의 논문에서도 오직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지각된 존재감만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통적인 영향력을 제외하고 아버지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어머니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영향력(unique effect)을 미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부모의 행동

적 통제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은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수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는 정도가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관계의 밀착성이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방해한다는 가족 체계 이론과 일맥상통한다(Dzukaeva, 2014).

둘째,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분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과 대학생 모델에서 다르게 관찰되었다. 만 14세의 중학생의 경우, 비록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지만(표 1), 독립변인들과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제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비선형적(curvilinear)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중간 정도일 때, 기능적 독립 점수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만 23세의 대학생 그룹이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을 시도하기 전의 그룹(기능적 독립 점수가 낮은 그룹), 독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그룹(기능적 독립 점수가 중간 정도인 그룹), 성공적으로 독립을

성취한 그룹(기능적 독립 점수가 높은 그룹)으로 섞여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대학생의 경우, 어떠한 문제에서는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어떠한 문제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점수가 중간 정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우 독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상에서 겪게 되는 경험 및 그로 인한 좌절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측정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연구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만 23세 이후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가 검증되어, 어느 시기 정도가 되어야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자아존중감에 선행적인 정적 영향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만 23세의 대학생의 경우, 모든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성취 과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자아존중감에 선행적 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성취가 정상적인 발달 과업인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성공적인 기능적 독립 성취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실패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보다 높은 연령층을 포함하는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

의 중요성과 청소년 시기 별로 다를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영향력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사회의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중 행동적 통제 양육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들은 온정적 양육 행동, 심리적 통제와 같은 다른 차원의 양육 행동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지나 (2005).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장혜인 (201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253-275.
- 김현아, 장혜인 (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41-62.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이미정, 지연경, 도현심 (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장세영 (201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2), 11-21.
- 정득, 이종석 (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의 상호작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 채명옥, 임소연, 이용화, 김지현, & 오진아 (2016). 한국어판 헬리콥터 양육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3), 207-214.
- Bannink, R., Pearce, A., & Hope, S. (2016). Family income and young adolescents' perceived social position: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101(10), 917-921.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

- Baraldi, A. N., & Enders, C. K. (2010). An introduction to modern missing data analys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1), 5-37.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Chuni, W., 안도희, & Doehee, A. (2017). 한·중 고등학생의 부모의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지각, 자기조절학습, 자율성 및 학업 지원 행동 간의 관계. *교육문화연구, 23*(6), 317-340.
- Dzukaeva, V. (2014). Family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during late adolescence.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6*, 346-352. doi:10.1016/j.sbspro.2014.08.110
- Elliott, G. C., Kao, S., & Grant, A. M. (2004). Mattering: Empirical Validation of a Social-Psychological Concept. *Self and Identity, 3*, 339-354.
- Erikson, E. H. (1972).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arbarino, J., Gaa, J. P., Swank, P., McPherson, R., & Gratch, L. V. (1995). The relation of individuation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1-318. doi:10.1037/0893-3200.9.3.311
- Grossmann, K., Grossma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elisch, H., & Zimmermann,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Guo, X., Lv, Bo., Zhou, H., Liu, C., Liu, J., Jiang, K., & Luo, L. (2018). Gender Differences in How Family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 Relate to Reading Achievement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xpect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Frontiers in Psychology, 9*, doi:10.3389/fpsyg.2018.00783
- Haws, W. A., & Mallinckrodt, B. (1998). Separation-individuation from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djustment of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293-306. doi:10.1080/01926189808251108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Kerns, K. A., Aspelmeier, J. E., Gentzler, A. L. & Grabill, C. M. (2001). Parent-child attachment and 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69-81.
- Koepke, S., & Denissen, J. J. A. (2012). Dynamics of identity development and separation-

- individua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A conceptual integration. *Developmental Review*, 32(1), 67-88.
- Lapsley, D. K., & Edgerton, J. (2002). Separation 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484-492. doi:10.1002/j.1556-6678.2002.tb00215.x
- Lee, C. S., Anderson, J. R., Horowitz, J. L. and August, G. J. (2009). Family Income and Parenting: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58(4), 417-430
- Leidy, M. S., Schfield, T. J., & Parke, R. D. (2013).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N. J. Cabrera, C. S. Tamis-LeMond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151-167). New York: Routledge.
- Leondari, A., & Kiosseoglou, G. (2000).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o th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young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4), 451-464. doi:10.1080/00224540009600484
- Linder, J. R., & Collins, W. A. (2005). Parent and peer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and conflict manage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52-262.
-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2), 123-132.
- MacKinnon, D. P.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Routledge.
- Marshall, S. K. (2001). Do I matter? Construct validation of adolescents'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Adolescence*, 24(4), 473-490.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doi:10.1037/0022-0167.51.2.213
- Meeus, W., Iedema, J., Maassen, G., & Engels, R. (2005). Separation-individuation revisited: On the interplay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 identity and emotional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1), 89-106. doi:10.1016/j.adolescence.2004.07.003
- Muthén, B. O., and Muthén, L. K. (1998-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doi:10.1006/jvbe.1996.0024
- Özdemir, Y., Vazsonyi, A. T., & Çok, F. (2017). Parenting processes, self-esteem, and aggression: A mediation model.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5), 509-532. doi:10.1080/17405629.2016.1240674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 Parker, J. S., & Benson, M. J.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Family Therapy*, 39, 519-530.
- Pinquart, M. (2016). Association of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3), 475-493.
- Pinquart, M. (2017). Associations of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with ex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 updated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73-93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 McCullough, C. (1981). Mattering: Inferred significance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2, 163-182.
- Stevenson, M. M., Fabricius, W. V., Cookston, J. T., Parke, R. D., Coltrane, S., Braver, S. L., & Saenz, D. S. (2014). Marital problems, maternal gatekeeping attitudes,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4), 1208-1218.
- Suh, G. W., Fabricius, W. V., Stevenson, M. M., Parke, R. D., Cookston, J. T., Braver, S. L., & Saenz, D. S. (2016). Effects of the interparental relationship on adolescents' emotional security and adjustment: The important role of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52(10), 1666-1678. doi:10.1037/dev0000204
- 1차원고접수 : 2019.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9. 04. 11.
최종게재결정 : 2019. 05. 30.

**The effect of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mediated rol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Go Woon Su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ed rol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perceived mattering to parents in the effect of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on adolescents' self-esteem. A total of 131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3) and 137 university students (aged 23) participated in the study. First, fathers' higher knowledge of their children's activities and behaviors predicted heightened perceived mattering to fathers, which in turn, predicted better self-esteem in adolescents. Second, for university students, the curvilinear effect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was found. Adolescents who were in the middle level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mothers showed lower self-esteem than adolescents who were in the higher and lower levels of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their mothers. The current study revealed the significant role of fathers and the possible different mechanisms regarding the effect of separation from mothers on adolescents' self-esteem depending on their age.

Key words : father, mattering to parents, separation from parents, behavioral control parenting, adolescents, curvilinear